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벤쿠버의 조용한 시골 느낌이 나는 곳에 위치하였고 학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귀여운 오리들이 있고 편의시설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한날에는 직원분들이 캐나다에서의 교통방법(예로 버스 승하차시 요령, zone1,2의 차이 등등) 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고 홈스테이 가족이 오면 다시한번더 설명 후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처음 도착 한날(일요일)은 대학 홈스테이 직원분들이 캐나다에서의 교통 방법(예로 버스 승하차시 요령, zone1,2의 차이 등등) 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고 홈스테이 가족이 오면 다시한번 더 설명후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 다음날 월요일(BC 데이)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화요일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분반을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토익과 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이 결정 되었는데 한국인 학생은 저 포함 5명이고 나머지 12명은 일본인 교환학생들이였습니다. 저는 남자 선생님 반이였는데 매일 숙제는 있었지만 정말 쉬운 숙제들로 해주셨습니다. 일기는 매일 숙제였지만 월요일만 건너서 첨삭해주셨습니다. 첫 주에는 1대1로 파트너를 결정하고 주제를 설정하여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하였고 둘째주 부터는 그룹 토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1) 카약킹 오전에는 수업을 실시하고 점심먹고 모여서 카약킹을 하러갔습니다. 갈때는 무조건 방수팩을 챙기세요. 거기 직원분들은 카약 할 때 안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노를 저으면 물이 조금씩 튀어서 폰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안가지고 들어갔는데 후회했습니다. 방수팩 꼭 챙기시고 샌들 추천 드립니다.</p> <p>2) 디스커버리 벤쿠버 조를 나누어서 랑가라 대학교 학생1명의 인솔하에 벤쿠버의 명소를 다녀온후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산티아고 라는 학생아래에서 한국인 3명과 일본인 3명과 조가 되었습니다. 주로 다운타운, 레인드롭, 가스타운, 스팀클락, 사이언스월드, 그랜빌 아일랜드 등등 벤쿠버의 유명한 명소를 가서 이야기를 듣고 사진 찍은후 다음 수업시간때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반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어떻게 가는 방법을 잘보고 다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표가 막 어렵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부담 안가지고 해도됩니다.</p> <p>3) 아쿠아리움 스탠리파크안에 있는 작은 아쿠아리움입니다. 안에는 귀여운 수달들과 펭귄 같은 귀여운 동물과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도착해서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모이라는 시간에 모여서 헤어지고 다시 구경해도됩니다. 아니면 자전거를 빌려서 스탠리 파크를 구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p> <p>4) 벤쿠버 박물관 벤쿠버의 역사를 볼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가기전에 오전에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때조를 나누어서 해당관련 기사를 나누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그것을 다음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여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p> <p>5)휘슬러산 정말 말도 안되는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휘슬러라는 산을 리프트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리프트와 곤돌라의 높이에 많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기전에는 무조건 긴셔츠나 저지를 입고 모자 선글라스를 챙겨가세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습도가 거의 없어서 틀수 있으니깐 바디로션을 챙기세요. 비가 많이와서 레인쿠버라고 하는데 저때는 비가 한번 잠깐 왔습니다. 우산을 혹시 모르니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긴팔 긴바지 저지도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늦은밤에는 홈타운은 정말 조용합니다. 통금시간에 잘 들어가면 괜찮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필리핀 홈맘과 성인 딸1명 , 성인 아들 2명이 사는 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워시간은 5분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녁10시 이후에는 샤워를 자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빨래는 토요일에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홈스테이 자식들과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밥은 홈맘이 마음대로 빼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점심밥은 홈맘이 챙겨주셨는데 저는 주로 밥과 반찬이였고 아니면 면종류 혹은 샌드위치였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입맛에 맞았으나 몇몇 친구들은 샌드위치만 챙겨주어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은 매일 밖에서 사먹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닌 친구들은 밖에서만 먹었는데 캐나다에서 유명한 맛집을 가는 것이 여행 이유 중에 하나였으므로 밖에서만 밥을 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와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49번 버스를 1번만 타면 학교앞에 내릴수 있어서 교통편은 매우 편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칩	6만3천원	
외식비용	55만원	
기념품	15만원	
서스펜션 브릿지 입장료	3만5천원	
빅토리아 아일랜드	3만5천원	
합계	833,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 1)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수 준비물은 썬크림, 썬글라스, 방수팩, 샌들, 저지, 바디로션, 긴팔, 긴바지, 편한운동화, 저지, 동전지갑 입니다.
- 2) 가기전에 학교에서 알려주시는 홈스테이 집 주소로 랑가라 학교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두고 홈스테이집에 메일을 미리보내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유심은 한국 유심이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데이터 무제한과 캐나다안에서 문자,통화 무제한으로 해서 사갔는데 그쪽에서 산사람들은 조금은 안좋았습니다.
- 4) 환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는 500달러를 환전하고 나머지는 카드를 이용하여서 결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드는 수수료가 빠지는 대신 팁까지 알아서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하고 현금은 수수료가 없는 것이 좋지만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 조금과 카드이용추천입니다. 100달러는 식당말고는 잘안바꿔줍니다.
- 5) 요금을 계산하실때는 세금이 붙기전 가격입니다. 세금을 생각하셔야하고 식당에서 먹을 경우 팁이 붙습니다.
- 6) 여행을 갈곳을 미리미리 알아두고 오세요. 저는 가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그랜빌 아일랜드, 키칠라노 비치, 잉글리쉬베이 비치, 빅토리아 아일랜드 등등입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 빼고는 다 다운타운이니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가는 길이 멀지만 그래도 꼭 가보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영어를 매우 못합니다. 그래서 랑가라 합격을 하고도 갈까 말까 백번을 고민하고 내가 가면 홈스테이 맘이랑 말은 통할까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발표도 못할 것 같아서 가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기전날까지도 취소까지 하고싶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못알아듣겠다고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고 수업중에 이해안가는 것은 친구들에게 다시 물어보면됩니다. 제가 알아듣고 아무탈 없을 정도면 정말 걱정없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못줄 추억을 안고 왔습니다. 정말 고민하지말고 지원하여 합격해서 더 즐겁게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잉글리시 베이에서</p>	<p>빅토리아 아일랜드 가는길</p>
	
<p>홈맘과 함께</p>	<p>휘슬러 산 가는길</p>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캐나다 플레이스